

간겐대승정 좌상

간겐(854~925년)은 진언종의 승려로서 900년에 닌나지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. 그의 찬란한 이력은 이로부터 시작되어 그 뒤 25년에 걸쳐 도지 절, 다이고지 절(모두 교토), 곤고부지 절(와카야마) 등 많은 사원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. 이에 따라 간겐은 닌나지 절뿐만 아니라 헤이안 시대(794~1185년) 진언종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. 진언종의 창시자인 구카이(774~835년)가 806년에 중국에서 가지고 돌아온 경전을 도지 절의 경장(經藏)에 수납하는 사업과 나라의 한냐지 절 창설 등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등, 간겐의 공적은 매우 큰 것이었으며, 구카이에게 '고보대사'라는 존칭을 내리도록 천황에게 청원한 이도 간겐이었습니다.